‘한국 테니스의 희망’ 정현이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에서 기분좋게 출발했다. 28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19 US오픈 남자단식 1라운드 어네스토 에스커베이도와 맞대결에서 3시간36분 혈투 끝에 3-2로 승리했다. 뉴욕 | AP뉴시스

정현 US오픈 2회전 진출

17개 서브에이스 에스커베이도에 역전
1회전 통과 상금 약 1억2000만원 확보

남자 테니스 세계랭킹 170위 정현(23·제네시스 후원)이 시즌 마지막 테니스 메이저 대회인 2019 US오픈(총상금 5700만 달러·약 690억 원) 1회전에서 3시간36분 혈투 끝에 짜릿한 역전승을 일궜다.

정현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어네스토 에스커베이도(미국·206위)와 대회 남자단식 1라운드에서 3-2(3-6 6-4 6-7〈5-7〉 6-4 6-2)로 드라마같은 역전극을 완성했다. 1회전 통과 상금은 10만 달러(약 1억2000만 원)다.

최근 3년 연속 US오픈 2회전 진출에 성공한 정현은 29일 세계랭킹 34위 베테랑 페르난도 베르다스코(스페인)와 32강 진출을 놓고 격돌한다. 토비아스 캄케(독일)를 누르며 2회전에 진출한 베르다스코는 2015년 한 차례 정현에게 아픔을 안긴 바 있고 US오픈 최고 성적은 2009년과 이듬해 8강이다.

2회전까지 진출한 올해 1월 호주오픈 이후 허리 부상으로 프랑스오픈, 윔블던 등 주요 메이저대회를 모두 건너뛴 정현은 최근 중국 청두 챌린저(우승)를 통해 건재를 알렸고 US오픈에서도 예선 3연승을 달렸다.

그러나 본 무대 출발은 좋지 않았다. 정현은 에스커베이도를 상대한 이날 경기 3세트까지 1-2로 밀렸다. 다행히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4·5세트를 내리 잡아내면서 4시간 가까운 치열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17개에 달한 서브 에이스의 힘이 컸다. 정현은 64차례 공격을 성공시켜 46회에 머문 상대를 압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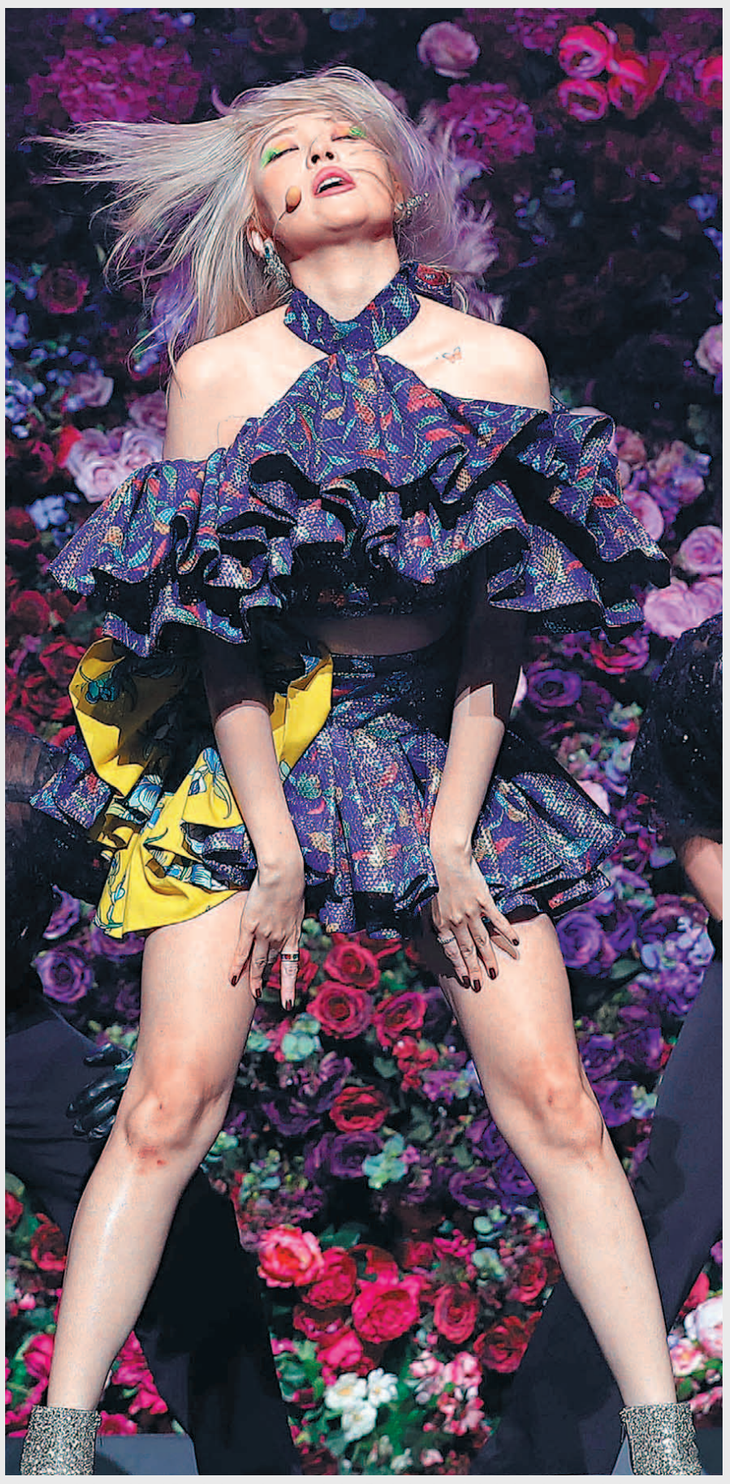
정현은 경기 후 매니지먼트사(IMG 코리아)를 통해 “어려운 경기를 이겨서 기쁘다. (베르다스코와의) 다음 라운드도 쉽지 않겠지만 오늘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싶다”고 다부진 의지를 전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선미, ‘가시나’에서 ‘날라리’까지 5연속 히트행진

‘날라리’도 음원 1위 ‘선미 팝’의 전성시대



가수 선미가 27일 서울 광진구 예스24 라이브홀에서 신곡 ‘날라리’ 발표 쇼케이스를 열고 화려한 무대를 펼치고 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라틴풍에 태평소 이색적인 자작곡
‘호텔 델루나’ OST·엑스원도 제쳐
섹시 표방 ‘선미표 퍼포먼스’ 이어
자신만의 장르 ‘선미 팝’ 정착 성공
여성 솔로가수로 독보적 입지 구축

가수 선미가 또 한번 ‘일’을 냈다.

선미가 5개월 만에 신곡 ‘날라리’를 발표하며 여성 솔로가수로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선미의 ‘선전’으로 음원차트는 요동쳤고, 여름이라는 계절이 무색할 정도로 발라드 곡으로 구성된 드라마 OST의 장기 집권까지 막으면서 뒤늦게 댄스곡이 음악 팬들을 사로 잡는 형국이다.

선미는 27일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날라리’를 공개하자마자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28일에도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써 ‘가시나’를 시작으로 ‘주인공’, ‘사이렌’, ‘누아르’에 이어 ‘날라리’까지 5연속 흥행을 거뒀다. 음원차트에서 1위에 오르면 좀처럼 순위가 바뀌지 않는 음원사이트 특성상 이 같은 기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미의 성과는 그동안 음원차트에서 ‘OST 재열풍’을 일으키며 이른바 ‘차트 줄 세우기’를 했던 케이블채널 tvN ‘호텔 델루나’ OST 수록곡들까지 제친 것이어서 더욱 시선을 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날 데뷔한 프로젝트 그룹 엑스원의 신곡 ‘플래시’도 가볍게 눌렀다. 엑스원은 엠넷 오디션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이 배출한 아이돌 그룹으로, ‘생방송 투표 조작 의혹’이 제기됐지만, 팬덤의 크기로만 보면 솔로인 선미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번 흥행은 선미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 늘 같은 모습이 아닌 색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도가 또 다시 빛을 발해서다.

제목 ‘날라리’는 태평소라는 우리 고유의 악기 이름이면서 동시에 ‘자유분방하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았다. 선미가 앞서 3월 진행한 북미와 멕시코 투어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작업한 자작곡이다. 댄스 장르에 라틴풍의 이국적인 사운드, 태평소 연주를 가미해 듣는 재미도 있다.

덕분에 ‘선미 팝’이라는 자신만의 장르까지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긴 팔과 다리를 이용한 섹시한 춤도 ‘선미표 퍼포먼스’로 통한다. 가녀린 몸이 뿜어내는 카리스마로 무대를 압도한다.

선미는 신곡 발표에 앞서 서울 광장동 예스24라이브홀에서 열린 쇼케이스에서 “변화를 꿈꾸지만 늘 기존 이미지에 대해 고민한다”며 “곡의 분위기와 외형적인 모습에서 나오는 퍼포먼스 등으로 강렬한 변화를 줄 수 있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3년간 지속된 800만 관중시대 붕괴·TV중계 시청률 0.9%대 무너져

위기의 KBO리그, 변해야 산다

이경호의 해피존

올해 KBO리그 관중수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27일까지 진행된 602경기의 관중은 620만5376명이었다. 경기 당 평균 1만308명. 현재 추세로 시즌 전체 720경기를 모두 치렀을 때 약 742만 관중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KBO리그는 807만3742명의 관중이 입장했다. 2017년에는 역대 최다인 840만688명의 관중을 기록했다.

KBO리그는 지난 3년간 대단한 호황이었다. 2016년 처음 800만 관중을 돌파했고 3년 연속 800만 관중을 넘어섰다. 그러나 2017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800만이라는 상징적 숫자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시즌 막바지 순위 경쟁과 날씨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에 따라 예상치인 740만명보다 훨씬 줄어들지도 모를 일이다.

경기장 입장 관중과 함께 리그 흥행의 양대 축으로 볼 수 있는 중계방송 TV시청률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경기장에서 800만 관중이 무너졌다면 TV시청률은 0.9%대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AGB닐슨 조사 결과 25일까지 스포츠전문 케이블 채널의 프로야구 중계 평균 시청률은 0.854%를 기록했다. 10개 구단 체제로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하루 5경기가 동시에 중계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시청률이다.

KBO리그 TV시청률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 이상을 꾸준히 기록했다. 모바일 등 뉴미디어를 통해 야구를 즐기는 팬들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2014년부터 평균 시청률이 1% 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다. 0.872 이하로는 단 한번도 떨어지지 않고 0.8 후반부터 0.9 후반을 계속 유지해 왔다. 그러나 올해 시청률이 급격히 감소했다. 관중수 하락과 함께 리그 경쟁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2018년 KBO리그 평균 시청률은 0.970이었다. 평균 1% 이상을 기록한 채널이 2개나 됐고 2개 채널이 0.9% 이상을 유지했다. 올해는 단 1개 채널만 평균 1% 이상을 지키고 있다. 0.8%대 채널이 3개, 가장 시청률이 낮은 채널은 0.680이다. 시청률 감소는 중계방송사의 수익에 곧장 영향을 미쳤고, 이는 중계영상의 ‘품질’이 퇴보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까지 각 방송사는 초고속 카메라와 4D입체 영상 등 다양한 중계기술을 선보이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지만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올 시즌에는 현장 카메라 숫자부터 줄이고 있다.

KBO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올해 KBO리그의 TV중계권 계약이 만료된다. 일부 구단에서는 내년부터 비용상의 문제로 전 경기 중계 계약에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구단 자체 인터넷 중계나 모바일 중계권사의 중계제작이 가능하지만 모든 경기를 TV에서 생중계로 볼 수 있다는 KBO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사라지게 된다. 관중수와 TV시청률 동반 하락은 KBO리그가 처음 겪는 심각한 위기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선수와 구단, KBO까지 리그 구성원의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할 때다. 스포츠부 차장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성화를 밝히다

세계 유일의 국제무예종합경기대회인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를 알리는 성화가 마침내 채화됐다. 대회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충북 이시종 도지사(앞 왼쪽)가 28일 1회 대회 개최지인 청주 상당산성에서 태양열로 채화된 성화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충주 천등산(29일)의 성화와 함께 이원채화 방식으로 이번 대회를 빛낼 성화는 대회 개막일인 30일까지 충북 각 시·군을 순회한다. 이시종 위원장은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의 성화가 드디어 불을 밝혔다. 올림픽 성화처럼 무예마스터십의 성화가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빛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청주 | 뉴시스

벤투 감독, 첫 발탁 김신욱 예전부터 모니터링

▶벤투 체제 1년…1면에서 이어집니다

-벤투 감독이 보수적으로 팀 운영을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밖에서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왜 더 많은 실험을 하지 않으냐고 하지만 벤투 감독은 자기가 써 보고 싶은 선수는 다 써봤다고 생각한다. 6월 평가전부터는 실질적으로 월드컵을 준비했다. 플랜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월드컵 예선을 대비한 것이다. 더 이상의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면서 더 신중해졌다.”

이제부터 월드컵 체제다. 다음달부터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이 시작된다. 투르크메니스탄, 북한, 레바논, 스리랑카와 함께 H조에 편성된 한국은 투르크메니스탄과 예선 1차전(9월 10일)을 갖는다. 벤투 감독은 26일 원정경기에 나설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명단을 보면 벤투 감독도 많이 유연해진 것 같은데.

“이동경(울산)을 뽑은 것처럼 그는 항상 새로운 선수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경쟁시킨다. 선수를 뽑고, 소집 기간에 평가하고, 그리고 꾸준히 관리를 한다. 김신욱을 갑자기 뽑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항상 예비명단에 있었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했다. 코칭스태프가 갖고 있는 명단 풀이 70명이 넘는다. 지난해 30여명과 비교하면 많이 증가했다. 이 선수들을 모두 다 관리한다.”

-이번 월드컵을 전망한다면.

“우리에게 언제 쉬운 월드컵이 있었던가. 쉽게 본선에 간 적은 없다. 위기는 언제든 온다. 그걸 잘 대응해서 이겨내는 게 중요하다. 아시아권의 전력은 상당히 높아졌다. 중국은 최종예선까지 7~8명을 귀화시킨다고 하는데, 상당히 수준 높은 경기를 할 것이다. 호주나 이란, 이라크,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도 세계적인 수준이다. 우선 2차 예선을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10월 북한과 원정경기를 갖는데.

“벤투 감독을 만나 남북은 물론이고 한일, 한중 관계는 상당히 예민하다고 설명을 해줬다. 그도 인식은 하고 있더라. 북한과 경기를 앞두고는 너무 특별하게 바라보면 선수들이 긴장하니까 다른 경기처럼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 맞는 말이다.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